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5. 7. 6. ~ 7. 12.

전남농업정보 41 VOL

주간 기상전망

농축산물 재배·출하·가격 동향

고추·대파 재배 동향 및 양념채소·엽근채소 가격 동향

전남 농특산물 가격 및 수급 동향

전남 양파·마늘·매실·감자 가격 및 수급 동향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전남도, 2015년 한농연 전국대회 여수로 유치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7년까지 할랄시장 수출 15억불 달성 본격 추진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여름철 효과적인 가축 관리 방안

정책동향

구제역 평시 방역 전환·AI 특별방역 지속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며 강수량도 평년(7~20㎜)과 비슷

❀ 농산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2015년산 고추 재배면적 전년산보다 4% 감소
- 3~6월 대파 정식면적 전년 대비 7% 감소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양념채소 : 마늘, 양파**

- **마 늘** : 마늘 7월 도매가격은 2015년산 생산량 감소로 평년(3,817원)보다 높은 4,500~4,800원/kg 전망
- **양 파** : 양파 7월 도매가격은 2015년산 생산량 감소로 평년(811원) 보다 높은 1,100~1,400원/kg 전망

▸ **엽근채소 : 감자, 당근**

- **감 자** : 감자(수미) 가격은 작년 및 평년과 비슷하고 전월 대비 하락한 17,000~22,000원/20kg 전망
- **당 근** : 당근 가격은 평년과 비슷한 27,000~32,000원/20kg 전망

❀ 전남 농특산물 가격 및 수급 동향(전라남도)

▸ 전남 양파·마늘·매실·감자 가격 및 수급 동향

· 가격동향(6.30.현재, 상품기준)

- 마 늘 : 4,800원/㎏(전년 2,920원 대비 64%↑, 평년 대비 13%↑)
- 양 파 : 1,237원/㎏(전년 446원 대비 177%↑, 평년 대비 49%↑)
- 매 실 : 1,972원/㎏(전년 1,035원 대비 91%↑, 평년 대비 13%↓)
- 감 자 : 989원/㎏(전년 801원 대비 23%↑, 평년 대비 3%↑)

· 매실 수급현황

- 재배면적은 전국의 69%인 3,937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1,972원/1㎏ (전년 1,035원 대비 91.5%↑, 평년 2,258원 대비 13%↓)

❀ 전남 시·군 농정 동향(전라남도)

▸ 전남도, 2015년 한농연 전국대회 여수로 유치

▸ 장흥군, 첨단과학 한우 육성 '관심'

▸ 곡성군, 자연순환생명농업 메카 자리매김

▸ 영광군,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접수

▸ 신안 4개 권역별 유용미생물배양장 확대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농림축산식품부)

▸ '17년까지 할랄시장 수출 15억불 달성 본격 추진

▸ 긴 가뭄 불구 수출용 여름 과실류 재배 순항

▸ '저년근 인삼' 중국 수출 테스트 통관사업 추진

❀ 농업기술정보(농촌진흥청)

- 여름철 효과적인 가축 관리 방안
- 탑과채 딸기 생산 위한 육묘 기술 현장 상담
- 논 콩 파종 서두르세요!
- 시설고추 석회결핍 차광 환기창으로 해결
- 대추과원 복숭아심식나방 피해예방 나설 때

❀ 정책동향(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 평시 방역 전환·AI 특별방역 지속
- 농관원, 품질인증 전통식품의 6차산업화 지원
- 전업규모 축산농가 허가 기준 시설 조사 나선다
- 미곡 혼합 유통·판매, 7월 7일부터 금지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브라질, 타이트한 대출로 대두 파종면적 감소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전일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감
  - 옥수수 선물가격은 농부들의 공격적인 수확 판매와 동부와 미주리 옥수수 주요 생산지역에 폭우와 이에 따른 품질 우려로 가격 반등
  - 대두 선물가격은 1월 중순이래 가장 높은 랠리를 기록, 급등으로 마감

❀ 고소득 농업사례(강원도민일보, 농민신문)

▸ 고성서 체리 노지 재배 성공 청년농업인 김동률 대표

▸ 시설채소로 수억대 매출 올리는 권숙찬씨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15년 FTA 피해보전(피해보전직불금, 폐업)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6. 18. ~ 8. 28.
- 지원품목 : 닭고기(육계, 토종닭, 삼계)
- 지원대상 : 한미 FTA 협정발효일('12.3.15) 이전부터 닭고기를 생산한 자
  - 피해보전직불금 : '14년에 닭고기를 생산하여 피해를 입은 자(계열화사업자 등)
  - 폐업지원금 : 사육규모가 회당 1천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장 소유권자
- 지원단가(추정) : 직불금(19원/㎏), 폐업지원금(187원/마리)

▸ 전남-경북 농특산물 331장터 추진

- 행 사 명 : 전남-경북 농특산물 331장터
- 기　　간 : 2015. 10월 중순 ~ 11월 상순(기간중 3일간)
- 장　　소 : 서울광장(잠정)
- 규　　모 : 50여개 부스(도별 각 25개씩, 시군, 농협 등 단체)
- 행사내용 : 전남-경북 농수특산물 홍보 및 판촉, 영호남 화합행사

▸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수도권 공동마케팅 추진

- 기　　간 : 7. 2 ~ 7. 15(14일간)
- 장　　소 : 농협 고양하나로클럽(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최/주관 : 전라남도 / 농협 전남지역본부
- 참여업체 : 10개 농협('15. 전국 10대 고품질 브랜드 경영체)
- 주요내용 : 공동판매전, 홍보·시식행사, 구매 고객 사은품 증정 등

▸ 2015년 남도 우리 술 품평회 개최

- 일시/장소 : 7. 10.(금) 11:00 ~ 16:00 / 도청 수리채
- 주　　관 : (사)한국전통주진흥협회
- 참여기관 : 3개 시·도(전남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 출품제품 : 25개 업체, 42개 제품(전남 33, 광주 1, 제주 8)
- 선발계획 : 24개 제품(전남 18, 광주 1, 제주 5)
- 심사위원 : 7명(국내 주류전문가, 소믈리에 등으로 구성)
- 주요내용 : 심사위원 관능평가로 제품선정, 출품제품, 컨설팅 등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7. 6.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7/6)	전주 (6/2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9,800	39,800	39,800	42,600	41,200	↓ 6.6	↓ 3.4
	콩(백태)	35kg	139,000	139,000	139,000	142,000	196,900	↓ 2.1	↓29.4
	고구마(밤)	10kg	37,600	37,400	30,000	33,000	34,560	↑13.9	↑ 8.8
	감자(수미)	20kg	26,000	28,600	38,750	20,500	21,593	↑26.8	↑20.4
채소류	배추(월동)	1kg	700	700	753	558	609	↑25.4	↑14.9
	양배추	10kg	7,200	8,000	11,175	5,425	5,275	↑32.7	↑36.5
	오이(다다기계통)	15kg	27,333	26,333	21,000	22,750	29,258	↑20.1	↓ 6.6
	애호박	8kg	12,400	14,200	9,500	8,900	10,893	↑39.3	↑13.8
	토마토	10kg	16,800	16,800	18,100	14,200	16,733	↑18.3	↑ 0.4
	무(월동)	1kg	830	700	713	523	704	↑58.7	↑17.9
	당근	20kg	30,800	30,800	29,800	33,800	32,847	↓ 8.9	↓ 6.2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67,500	783,167	↑22.8	↑ 4.7
	풋고추	10kg	34,000	38,000	38,950	33,700	34,733	↑ 0.9	↓ 2.1
	마늘(난지)	10kg	48,000	48,000	36,200	31,500	37,577	↑52.4	↑27.7
	양파	1kg	1,110	1,010	738	440	731	↑152.3	↑51.8
	대파	1kg	2,240	2,370	2,525	1,080	1,474	↑107.4	↑52.0
	파프리카	5kg	14,600	15,200	22,200	16,800	17,740	↓13.1	↓17.7
	방울토마토	5kg	11,600	12,000	15,050	10,200	12,023	↑13.7	↓ 3.5
	수박	1개	13,800	13,600	14,250	13,400	13,747	↑ 3.0	↑ 0.4
과일류	사과(후지)	15kg	67,800	67,800	67,800	94,000	82,950	↓27.9	↓18.3
	배(신고)	15kg	39,600	39,600	41,200	77,250	63,943	↓48.7	↓38.1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7/6)	전주 (6/2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2,000	532,000	532,000	534,000	558,000	↓ 0.4	↓ 4.7
	들깨	45kg	420,000	420,000	420,000	442,000	357,000	↓ 5.0	↑17.6
	새송이버섯	2kg	8,200	8,600	8,400	8,000	7,760	↑ 2.5	↑ 5.7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956	6,886	6,475	6,298	6,108	↑10.4	↑13.9
	돼지고기(삼겹살)	100g	2,197	2,088	2,179	2,188	2,029	↑ 0.4	↑ 8.3
	닭고기	1kg	4,839	5,800	5,048	5,144	5,777	↓ 5.9	↓16.2
	계란(특란)	10개	1,898	1,953	1,936	1,912	1,785	↓ 0.7	↑ 6.3
	우유	1리터	2,548	2,548	2,548	2,548	2,306	-	↑10.5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7. 6.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879 천원	4,828 천원	4,264 천원	↑ 1.1	↑ 14.4
	거세	6,295 〃	6,241 〃	5,569 〃	↑ 0.9	↑ 13.0
송아지 (6~7월)	암	2,556 〃	2,555 〃	1,973 〃	-	↑ 29.5
	수	3,145 〃	3,104 〃	2,689 〃	↑ 1.3	↑ 17.0
육우(600Kg)		3,500 〃	3,463 〃	2,582 〃	↑ 1.1	↑ 35.6
젖소수송아지(7일령)		198 〃	198 〃	16 〃	-	↑1137.5
돼지(110kg)		445 〃	424 〃	477 〃	↑ 5.0	↓ 6.7
육계(원/kg)		1,422 원	1,551 원	1,259 원	↓ 8.3	↑ 12.9
계란(원/특란10개)		1,221 원	1,220 원	1,393 원	-	↓ 12.3
오리(원/kg)		2,333 원	2,333 원	3,833 원	-	↓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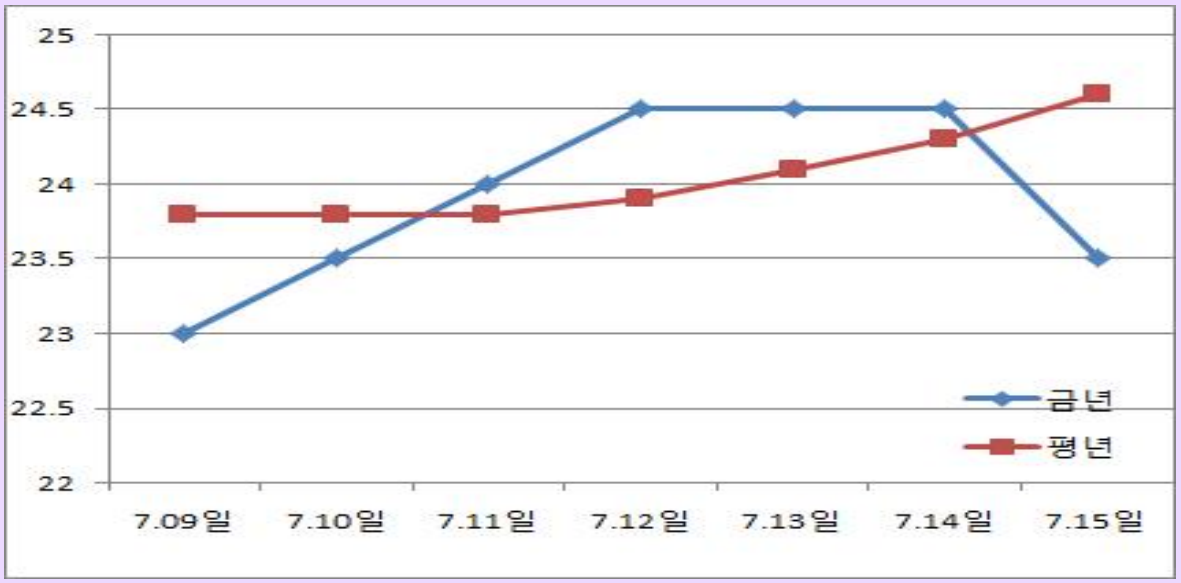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날 씨 (강수량 ㎜)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균(계)	23.9	24.0	-0.1	25.9	27.3	-1.5	22.0	21.8	-0.4	
7. 09.(목)	23	23.8	-0.8	24	27	-3	22	21.5	-0.5	비 (20㎜)
7. 10.(금)	23.5	23.8	-0.3	24	26.9	-2.9	23	21.5	-1.5	맑음
7. 11.(토)	24	23.8	0.2	26	27.1	-1.1	22	21.6	-0.4	맑음
7. 12.(일)	24.5	23.9	0.6	27	27.2	-0.2	22	21.7	0.3	맑음
7. 13.(월)	24.5	24.1	0.4	27	27.4	-0.4	22	21.8	0.2	맑음
7. 14.(화)	24.5	24.3	0.2	27	27.7	-0.7	22	22	0	맑음
7. 15.(수)	23.5	24.6	-1.1	26	28	-2	21	22.2	-1.2	맑음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재배 동향

고추·대파 재배 동향

❑ 2015년산 고추 재배면적 전년산보다 감소

○ 2015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산지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로 2014년산보다 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는 충청이 7%, 영남이 6%, 호남이 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5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2014년산과 평년보다 각각 4%, 22% 감소한 3만 4,600ha 내외로 추정된다.

❑ 3~6월 대파 정식면적 7% 감소

○ 3~6월 대파 정식면적은 전년 대비 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름·가을대파 주산지인 경기·강원지역은 당근, 감자로 작목이 전환되어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으며, 7~11월 출하량 감소가 예상된다.

○ 겨울대파 주산지인 진도·신안군은 대파 재배를 선호하는 농가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7~9월 정식의향은 최근 대파가격 상승으로 봄대파 출하가 완료된 포전에서 대파 재정식 의향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4% 증가할 전망이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양념채소 : 마늘, 양파

○ (마 늘)

- 마늘 7월 도매가격은 2015년산 생산량 감소로 평년(3,817원)보다 높은 4,500~4,800원/kg 전망

○ (양 파)

- 양파 7월 도매가격은 2015년산 생산량 감소로 평년(811원)보다 높은 1,100~1,400원/kg 전망

엽근채소 : 감자, 당근

○ (감 자)

- 감자(수미) 가격은 작년 및 평년과 비슷하고 전월 대비 하락한 17,000~22,000원/20kg 전망

○ (당 근)

- 당근 가격은 평년과 비슷한 27,000~32,000원/20kg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농특산물 가격 및 수급 동향

전남 양파·마늘·매실·감자 가격 및 수급 동향

○ 가격동향(6.30.현재, 상품기준)

- 마늘 : 4,800원/kg(전년 2,920원 대비 64% ↑, 평년 대비 13% ↑)
- 양파 : 1,237원/kg(전년 446원 대비 177% ↑, 평년 대비 49% ↑)
- 매실 : 1,972원/kg(전년 1,035원 대비 91% ↑, 평년 대비 13% ↓)
- 감자 : 989원/kg(전년 801원 대비 23% ↑, 평년 대비 3% ↑)
- 양파 계약면적/수매실적/수매가격
  - 계약면적 : 1,810ha(재배면적 9,171ha의 19.7%)
  - 수매실적 : 1,228ha(계약면적 1,810ha의 67.8%)
  - 수매가격(상품) : 9~12천원(전년도 7천원 대비 29~71% ↑)

○ 매실 수급현황

- 재배면적 : 3,937ha(전년 3,844ha 대비 2.4% 증) - 전국의 5,700ha의 69%
  - 시군별 : 광양 1,342, 순천 1,302, 곡성 606, 구례 215, 기타 472
- 출하동향 : 3,740ha(전체 면적 3,937ha의 95%)
- 도매시장 가격('15.6.30.현재, 1kg/상품기준)
  - 매실 : 1,972원(전년 1,035원 대비 91.5% ↑, 평년 2,258원 대비 13% ↓)

* 출처 : 전라남도

5. 전남 시·군 농정동향

전남도, 2016년 한농연 전국대회 여수로 유치

– 회원 3만여 명 참가해 100억 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

○ 전라남도는 3만여 회원이 참가해 1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2016년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이하 한농연) 전국대회'를 여수시로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

○ 한농연은 1988년 발족해 전국 12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다. 2년에 한 번 시도별로 순회하며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농업인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손꼽히며, 2박 3일간 일정으로 진행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 한농연은 지난해 제주도 전국대회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1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 때문에 지난 5월부터 내년 전국대회 개최를 놓고 여수시와 경북 구미시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쳐왔다. 한농연 중앙회는 지난 1일까지 이틀간 두 후보지의 현지 심사를 마치고 최종 개최지로 여수시를 선정했다. 여수시는 2012 세계박람회 개최로 확충된 기반시설과 숙박시설, 편리한 접근성 등의 장점을 부각해 현지심사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내년 전국대회는 '한농연의 땀과 열정, 농업의 희망을 보다'라는 주제로 8월 중순께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되며, 아름다운 여수의 바다와 세계박람회장을 배경으로 학술심포지엄, 전국노래자랑, 우수 농산물 품평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 주순선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대회 개최를 계기로 농도 1번지인 전남의 농업과 농업인 단체의 활성화를 꾀하고, 대회 기간 중 여수를 비롯한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장흥군, 첨단과학 한우 육성 `관심'

- "암소 유전자 분석해 체중 25kg 이상 향상" -

○ 전남 장흥군이 한우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도체중(도살했을 때의 무게)이 높은 소를 육성하는 '한우 도체중 예측 유전마커 활용 시범사업'이 한우농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29일 장흥군에 따르면 암소의 유전자를 분석해 효율적인 인공수정과 교배 계획을 수립하고자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1개 한우사육 농가에 890마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국립축산과학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우가 가진 염색체 60개 중 한우 도체중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인 14번째 유전마커가 'GG유전자형'보다 'AA유전자형'인 개체의 도체중이 평균 25kg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군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군은 이에 따라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AA유전자형'으로 밝혀진 암소를 중심으로 교배와 육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 시범농가로 선정된 위성태(61·용산면)씨는 "현재 사육하는 한우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우량 한우를 생산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좋은 기회"라고 반겼다.

○ 군농업기술센터 박계현 축산연구담당은 "송아지와 암소를 대상으로 유전마커를 분석해 육량형 밑소와 우량 송아지의 조기 선발로 한우 도체중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유전자 분석이 완료되면 농가별로 교배 계획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출처 : 남도일보

곡성군, 자연순환생명농업 메카 자리매김

- 200ha 면적 내실있게 추진 연간 1천여명 다녀가 -

○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곡성군 자연순환생명농업을 아시나요?”

○ 곡성군은 친환경자연농업관을 운영하면서 연간 1천여 명의 국내·외 농업인들이 다녀가는 등 자연순환생명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28알 밝혔다.

○ 군은 자연농업에서 영감을 얻어 벼농사에서 처음 시작한 자연순환생명농업을 육성해 원예작물, 축산 등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 또한 체계적인 자연순환생명농업 추진을 위해 자연농업학교에서 자연농업 기본연찬, 전문연찬 교육을 통해 지난 2007년부터 200여 명의 농가를 교육했다.

○ 자연순환생명농업은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 등을 쓰는 대신 그 지역에 예부터 적응해 온 토착미생물을 이용해 토양을 살리고 자연의 식물, 농업부산물을 활용해 농가가 직접 만든 영농자재를 이용, 자연농업영양주기에 따른 자연농업 처방을 통해 작물의 잠재능력을 이끌어내는 농업이다.

○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농업은 2015년 현재 벼 자연순환생명농업 196ha, 원예자연순환생명농업 4ha, 토착미생물 생산 공급 40톤, 자연농업 자재 생산 4톤 등을 생산해 농가에 활용하고 있다.

○ 특히, 군 농업기술센터에는 저온진공배양기를 설치해 농가에서 하면 미생물 채취부터 배양하는데 20일 이상 걸리는 시간을 1일로 단축, 농가의 어려움을 단숨에 해결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군에 따르면 자연농업 자재와 그 지역에 오랫동안 적응해 온 토착미생물 사용하면 특정균의 독점을 막아 미생물 등의 토양생태계가 균형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 또한 벼 자연순환생명농업을 실천해 온 재배단지와 필지를 가보면 긴꼬리투구새우, 풍년새우 등이 확인되고 서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더 하고 있다.

○ 군 관계자는 “200ha에 이르는 벼 자연순환생명농업단지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걸음마 단계인 원예작물 분야에서도 자연순환생명농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무등일보

영광군,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접수

○ 영광군은 오는 8월1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FTA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 FTA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 일부를 보전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 FTA피해보전직불제 지급 품목은 2013년 2개 품목(한우·한우송아지)에서 지난해 4개 품목(감자·고구마·수수·한우송아지), 올해에는 9개 품목(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등으로 확대됐다.

○ FTA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대상 품목 중 해당품목의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지난해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농업인 등이 신청대상이다.

○ 군 관계자는“지난해 감자, 고구마 품목 신청자 69명에게 피해보전직불금 8천40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 지원품목이 늘어나 신청대상자와 지원금액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며 " 작년에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을 경작해 피해를 본 농가들은 반드시 사업을 신청해 손해보전을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

○ FTA피해보전직불제 신청대상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농정과(350-4978)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무등일보

신안 4개 권역별 유용미생물배양장 확대

- 지속가능한 유기농 실천 경영비 절감 기대 -

○ 신안군은 권역별로 유용미생물 배양장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 24일 군에 따르면 올해 지속가능한 유기농 실천을 위해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유기인증 목표 300ha 달성과 안정적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 특히 북부권(지도, 증도, 임자), 중부권(자은, 암태, 안좌, 팔금), 서부권(비금, 도초, 흑산), 남부권(하의, 신의, 장산) 등 권역별로 유용미생물 배양장 4개소를 추가해 신축 중에 있어 친환경 농어가의 경영비절감과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유용미생물은 토양속의 유기물과 무기물을 분해해 농작물에 영양을 공급하고, 토양내의 독소 정화는 물론이고 산성화도 방지해 농작물의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또한 축사 내 악취제거 및 양식장 수질개선에도 효과가 있어 내실 있는 저비용 유기농 실천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 군은 친환경농가의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 유용미생물배양장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해 지난달 5월까지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등 총 400여t을 생산, 1만8천287명 농어가에게 공급, 친환경인증·축산농가, 어류양식 어가의 경영비 절감과 친환경 농축수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출처 : 광주매일신문

6.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17년까지 할랄시장 수출 15억불 달성 본격 추진

– 민관 협업으로 할랄식품산업 발전 및 수출 활성화 대책 수립, 발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의 할랄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할랄식품산업 발전 및 수출 활성화 대책”**(이하 대책)을 마련, 6.29(월) 개최된 제6차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1. 추진 배경

❑ **(할랄시장 전망)** 할랄시장은 전 세계 식음료 시장의 17.7%(‘13년, 1조 2,920억불)를 차지하는 거대 식품시장이며, 향후 무슬림 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무슬림인구(비중) : ('14) 17억명 (24.0%) → ('30전망) 22억명 (26.4%)

○ 할랄시장은 식품수입 규모가 전 세계 수입액의 약 10.5%(‘12년, 1,910억불)를 차지하며 미국, 유럽 등에서는 할랄식품 소비가 비무슬림까지 확대되고 있어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으로써 의미도 크다고 볼 수 있다.

❑ **(할랄시장 진출 애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15.6) 결과, 기업들이 할랄식품 시장 진출시 겪는 애로*는 할랄 인증시장 정보 부족, 국내 할랄 식품산업 기반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 ⅰ)정보부족(46.7%), ⅱ)인증절차 및 비용(37.7%), ⅲ)전용 라인 구축 비용 부담(29.3%) 등

○ 또한, 우리 농식품의 할랄 시장 수출품목의 다변화, 국내 할랄인증기관의 역량 강화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 주요 내용

가. 인프라 구축

❑ **(정보제공)** 주요국별 할랄시장 동향, 인증제도 등 관련정보를 파악하여 기업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할랄 정보 종합 디렉토리 구축, 할랄시장 수출 매뉴얼 마련, 온·오프라인 할랄 데스크 설치 등)할 방침이다.

○ aT, KOTRA, 한국식품연구원(이하 '한식연'), 재외공관 등과 협업을 통해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주요 할랄시장에 대한 심층 조사(시장·인증 정보 등)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제공할 예정이다.

❑ **(할랄 도축·도계장 설치)** 수요를 조사하여 할랄 도축도계장 시설 건립, 또는 개보수 자금을 지원(각 1개소)할 계획이다.

❑ **(할랄 생산단지)** 채소, 과일 등 할랄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첨단 IC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 시설로 원예수출 전문단지를 집중 육성(시설원예 현대화자금 활용)할 계획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 전용단지(할랄파크)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 **(R&D 및 인력육성)** 금년에는 장류의 알콜성분 저감 기술개발, 하람 대체소재 개발 등 우선 필요한 다섯 개 과제*를 추진한다.

* ①할랄제품의 진위판별을 위한 신속 진단기법 개발, ②이슬람 시장에 수출 가능한 장류 개발, ③할랄 K-푸드 및 대체소재 개발, ④플랜트 단위 생산공정에 대한 할랄인증지원, ⑤국내 고유 농산자원을 활용한 천연물 유래 상장용 제품 개발

○ 할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DB구축, 인력-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개발 등은 금년 중 업계 수요를 조사하여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나. 할랄 수출시장 확대

❑ **(할랄 인증지원)** 할랄인증 비용 지원을 확대(‘15: 10억원 → ’ 16 : 20) 하는 한편, 한식연 할랄식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할랄인증 기관의 인증분석 능력 강화, 인증시간 단축, 할랄인증 제품의 신뢰도 제고 등을 지원한다.

○ 또한, 해외 인증기관 등록을 현재 말레이시아(JAKIM, 갱신 ‘15.9) 외에 인도네시아(MUI, 신규 ’ 15.12), ‘16년 이후에는 UAE(ESMA), 싱가폴(MUIS) 등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해당국가들과 할랄식품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할랄인증 표준 제정)** 연말까지 한국형 할랄인증 표준*을 제정하여 국내 인증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 16년부터는 국제 표준을 주도하는 국가들(말레이시아, UAE 등)과 세미나 등을 정례화하여 한국 할랄인증의 공신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할랄 도축·도계장, 가공식품 등이 할랄 제품임을 확인, 인증하는 기준으로, 해외인증기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국표준으로 제정

❑ **(해외 마케팅)** 할랄시장에서 공격적 마케팅·홍보를 추진하여 한국 농식품의 인지도를 제고한다.

○ 또한, 무슬림 지역(중동, 동남아) 호텔 쉐프 교류, 재외공관 활용 한식 전파, 할랄지역 한식당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한국 식문화를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다. 국내 할랄식품 유통기반 마련

❑ **(표시 허용)** 현재 할랄인증 표시는 축산물을 제외한 일반 가공식품만 가능하고, 광고는 모든 제품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 모든 가공식품(축산물 포함)에 대한 할랄인증 표시와 광고가 가능하도록 근거법령*을 금년 내 개정(식약처)할 계획이다.

*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15.6.2~)

< 할랄인증 표시·광고 관련 규제 >

근거법령(관련 제품)	현행		개정	
	표시	광고	**표시**	**광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반가공식품)	O	X	O	O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 및 가공식품)	X	X	O	O

❑ **(할랄식당 확대)** 방한 무슬림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식사 문제 해결을 위해 할랄식당 리모델링 및 인증 비용을 신규 지원하고('16), 무슬림이 방문 가능한 식당(무슬림 친화식당)을 금년 중 등급화**하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문화부, '16)

* 무슬림 여행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이 할랄음식(66.8%)이며, 국내 방한 무슬림(말련)의 음식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1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Halal Certified, Self Certified, Muslim Friendly(주류 판매), Muslim Welcome (한식 채식식당), No pork(**돼지고기 이외 육류 판매**)

❑ **(환자식 개선)** UAE 국비환자 체류 병원(세브란스, 카톨릭 성모, 서울대 등 12개 병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조리시설 가이드라인, 할랄 레시피 등 정보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복지부 협업)

라. 추진체계 구축

❑ 농식품부내 할랄 및 코셔시장을 담당할 (가칭)신시장 개척과, 중동 현지 농무관 신설 및 UAE 아부다비에 aT지사 설치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한식연 할랄식품 사업단을 **'할랄식품 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특히, 할랄식품 종합지원센터는 할랄 인증정보, 인증기술지원·식품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전담하는 할 수 있도록 설치 근거를 마련(식품산업진흥법 개정)하고 '16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3. '15년 중점 추진 사항

❑ 농식품부는 할랄시장에 대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15년에는 수출기업들이 **당면한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UAE와의 할랄식품 전문가 포럼을 개최(9월, 서울) 및 해외 할랄시장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 개최, 현지 판촉전 및 K-Food 페어 개최(8월 말레이시아, 10월 인도네시아, 11월 UAE) 등 해외 마케팅·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 주요 할랄시장 4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장 동향, 인증 정보, 비관세 장벽, 검역 정보 등을 조사하여, 수출 매뉴얼을 제작하고(11월), 한식연 '할랄식품 사업단'에 개설하는 수출 상담창구(할랄데스크)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 또한, 국내 할랄인증 표준을 국가 산업표준으로 등재하고, 해외인증 기관과 교차인정 확대, 할랄인증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업체의 해외 할랄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내 축산 할랄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위해 할랄 도축·도계장에 대한 수요를 파악(~9월)하여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식약처 협업)을 통해 할랄인증 표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조속히 허용하고,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할랄식품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 aT유통교육원에 할랄 전문인력 강좌를 하반기에 개설하여 시범 운영한다.

4. 기대효과

❑ 수출업계의 할랄시장 진출시 애로사항인 정보 부족, 인증 애로, 시설부족 등 문제 해결과 함께 집중적인 할랄 제품 및 한식 홍보·마케팅으로 우리 식품기업의 할랄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할랄식품 수출 확산을 위해서는 할랄 인증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와 한국 농산물 이미지 제고가 중요하므로,

○ K-pop, 한류 등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한국 농식품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줄 수 있도록 외교부, 문화부,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긴 가뭄 불구 수출용 여름 과실류 재배 순항

– 포도·여름딸기·복숭아 등 작황 양호…수출물량 확보 큰 지장 없을 전망 –

○ 국내 수출용 여름 과실류인 포도·여름딸기·복숭아가 긴 가뭄에도 불구, 재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숭아의 경우 일부 품종에 피해가 예상되지만 수출물량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란 게 현장의 목소리. 그러나 과실류 전반적으로 태풍·이상기후 등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여름철 주요 수출 과실류의 현장 분위기를 점검했다.

▲포도=수출 포도는 긴 가뭄에도 불구하고 생장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품종인 캠벨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생육 상황이 좋은 편. 수출용 캠벨 포도의 주요 산지인 화성시 포도수출협의회 남윤현 대표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 생산량인 450톤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화성시 포도수출협의회에서는 지난해 수출량인 182톤을 넘어선 200톤까지 수출 목표를 확대했다. 남 대표는 "지난해처럼 추석이 빠르지도 않아 수출 여건은 좋다"며 "8월 10일경 호주로 올해 첫 수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거봉과 머스캣 베일리 에이(MBA, 머루포도) 역시 작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고온피해를 입었던 지난해보다 훨씬 더 양호한 상태. 거봉과 MBA를 수출 중인 영천시 금호농협의 이상호 과장보는 "관수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가뭄 걱정은 없다"며 "오히려 다가올 장마와 태풍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금호농협의 올해 수출 목표는 50톤. 이 과장은 "씨가 있는 포도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 수출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수확시기인 8월에 맞춰 바이어 공략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름딸기=강원도 대관령 등 고랭지 지역에서 재배되는 여름딸기의 올해 작황은 현재까지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생육이 양호한 편이다. 대관령 지역은 6월 현재 수확량이 평당(3.3㎡) 평균 7~8kg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다만 7월 이후 강수량은 많으면서 기온은 높아지는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될 경우, 여름딸기 작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산지에서는 방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여름딸기 수출업체 에이오케이(A.O.K F&B)의 김정욱 대표이사는 "최근 강원지역에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시설재배를 하는 여름딸기는 그 피해를 빗겨갔다"며 "10월까지 특별한 이상기후가 없다면, 올해 수확량은 예년과 비슷한 180~200여 톤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올해 여름딸기 작황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지속되는 엔저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악화로 여름딸기 수출산지는 올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욱 대표는 "올해 수출단가는 전년보다 10% 늘어난 kg당 2200~2300엔(한화 약 2만원) 수준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 여전히 수출할수록 손해"라며 "엔저 이전에는 수확 전량을 수출했지만, 올해는 일본 바이어와의 신뢰를 고려해 30톤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숭아=복숭아는 개화기의 냉해와 긴 가뭄이 겹쳐 일부 품종의 생육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수출량이 많지 않아 물량 공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숭아의 주산지인 음성군에서 수출용 복숭아를 생산 중인 음성 복숭아수출작목반에 따르면 7월부터 생산되는 조생종 등 전반적인

작황은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다. 그러나 8월 이후 수확되는 천중도와 황도에 냉해 및 가뭄 피해가 일부 나타난 상황. 하지만 복숭아 수출량이 적어 공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란 게 수출작목반 남상복 회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우리 복숭아 수출량은 87.6톤가량. 남 회장은 “수출 품종인 천중도와 황도에 약간의 피해가 있으나 우리 작목반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1750톤 정도는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올해는 러시아 시장을 공략해 우리 작목반에서만 10톤까지 수출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저년근 인삼' 중국 수출 테스트 통관사업 추진

○ 저년근 인삼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테스트 통관 지원사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인삼수출협의회는 지난달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5 인삼수출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황광보 협의회장과 20여개 회원사, 정연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수출부장 등이 참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국의 신자원식품 규정에 따른 저년근 인삼제품 수출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다.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5년근 인삼에 한해 보건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의 일종인 신자원식품으로 분류하는 ‘신자원식품관리방법(이하 신자원식품법)’ 규정을 신설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당초 정부와 국내 인삼 수출 업계는 중국의 신자원식품법 시행에 따라 저년근 인삼의 중국 통관 절차가 이전해 비해 간소화돼 수출 장벽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 관련 규정을 활용해 중국시장에 진출한 수출업체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 김상욱 ㈜구안산업 대표는 “신자원식품법 신설 이후, 2년 동안 저년근 인삼 수출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으나 제품 종류마다 적용 기준이 상이하고, 당초 알려진 것보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고 비용부담도 커 현재는 수출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황광보 회장은 “중국의 신자원식품법은 자국의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만든 법령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저년근 인삼제품의 통관을 까다롭게 하는데다가 중국 내 통관 지역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검사가 달라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다”고 말했다.

○ 여기에 제품 통관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 몰수 및 반품처리에 대한 비용을 우리 인삼 업체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인삼수출업체가 중국의 신자원식품법을 활용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신자원식품제 활용도 제고를 위한 테스트 통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연수 aT 식품수출부장은 “중국 유일의 검사·인증 시험기관인 중국검험인증(CCIC)과 협력을 통해 저년근 인삼제품의 중국 수출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르면 7월 말부터 희망업체를 모집해 제품 통관이 합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 수출을 시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외에 협의회에서는 올해 할랄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 인삼의 효능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홍보물 제작을 진행하는 한편, 업체 간의 과당경쟁 방지 등 수출 질서 확립 및 품질 안전성 강화를 통해 인삼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7.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여름철 효과적인 가축 관리 방안

– 농촌진흥청, 9월까지 폭염 피해 예방 기간 운영·지원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이상 기후로 인한 이른 더위로 축산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축종별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 축종별 고온 피해 시작 온도 >

구 분	한우 · 육우	젖소	돼지	닭
알맞은 온도	10~20℃	5~20	15~25	16~24
고온 피해 시작 온도	30	27	27	30

▷ 알맞은 온도보다 높으면 →**사료 섭취량이 줄어** 발육이 떨어짐
▷ 고온 피해 시작 온도보다 높으면 → **발육 · 번식 장해, 질병 발생, 폐사** 등 발생
▷ **30℃~35℃의 고온이 12일 간 지속되면**
비육우: 하루 체중 증가율 73% 감소, 착유우: 산유량 32% 감소
비육돈: 하루 체중 증가율 60% 감소, 산란계: 산란수 16% 감소

◆ 소- 열막이 재료 부착해 열 차단, 젖소는 비타민E·셀레늄 첨가

□ 소는 환기창이나 통풍창을 넓고 크게 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도록 하고, 천장이나 벽에는 열막이 재료를 붙여 태양열을 막는다.

○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게 하고, 지붕에 물을 뿌려 주며 운동장에 그늘막을 설치해 온도를 낮춘다.

□ 특히, 젖소는 사료 주는 횟수를 1회~2회 늘려 서늘한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준다. 배합사료에 비타민E와 셀레늄을 넣어 번식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미생물제제, 나이아신 등 첨가제를 먹여 더위를 극복하도록 돕는다.

○ 상대적으로 소화율이 높은 당밀을 2%~3% 넣어 먹는 양을 늘리는 것도 좋다. 젖소는 사료섭취량 1kg에 물 3kg~4kg, 우유 1kg에 물 3.5kg~5.6kg이 필요하다. 15℃~20℃의 지하수를 이용하면 좋다.

◆ 돼지- 점적관수로 체온 낮추고 어미돼지는 사료에 에너지 첨가

□ 돼지는 생리적으로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내에서 발생한 대사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다.

○ 여름철 돼지우리는 온도와 습도에 따라 열량지수(온도℃×습도%)를 활용한다. 내부 열량지수가 1,800(적정 열량지수 900~1,300)을 넘으면 환기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준다.

○ 체온을 직접적으로 낮추려면 시원한 물방울을 돼지 목과 어깨사이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점적관수를 이용한다.

- 페트병에 물을 얼린 후 작은 구멍을 뚫어 매달아 두면 점적관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내부 환기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습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분만 후 젖 먹이는 시기에 섭취량이 줄어든 어미돼지(포유모돈)는 친환경적으로 열을 내리는 얼음관장법을 써보는 것도 좋다.

- 플라스틱 통에 신선한 물을 얼린 후, 5분~10분가량 상온에 둔다. 통에서 얼음만 꺼내 항문 깊숙이 넣고 얼음이 빠지는지 관찰한다.

□ 사료와 급여 관리도 중요하다. 여름에는 사료통의 온도가 올라 통 내부에 물방울이 맺히는 응결이 발생하면서 곰팡이가 필 수 있으므로 사료는 7일 이내에 사용한다.

○ 질 좋은 사료를 공급하고, 특히 젖먹이 어미돼지는 에너지(지방) 첨가와 함께 급여 횟수를 늘린다.

○ 돼지는 사료섭취량의 3배~5배(젖먹이 어미돼지는 5배~8배) 정도의 물을 먹는다. 여름에는 체온 조절, 수분 증발, 혈액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 물 먹는 양이 늘어난다. 급수기 위치와 수압을 하루 한 번 이상 점검해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한다.

□ 장기 대책으로 천장에 유리섬유 같은 단열재를 설치하거나 지붕을 특수 세라믹 분말이 포함된 흰색 단열페인트로 칠하는 방법, 우리 옆에 활엽수를 심는 방법이 있다. 또, 주변의 잡초를 없애 바람이 잘 통하고 벌레로 인한(원충성)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

◆ 닭- 체온 높고 깃털 때문에 더위 약해, 환기로 닭장 온도 낮춰야

□ 닭은 다른 포유동물과 달리 체온(41℃)이 높고 깃털로 덮인 데다 피부에 땀샘이 없어 더위에 무척 약하다.

○ 닭장 내 적정 온도는 16℃ ~ 24℃로, 주변 온도가 27℃ 이상까지 오르면 열스트레스로 피해가 커진다.

○ 특히, 고온에 습도가 90% 이상 오르면 열량지수(쾌적 열량지수 900 ~ 1,300)가 1,800 ~ 2,300으로 높아져 육계의 경우, 출하 직전에 폐사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고온기 열량지수는 환기로 관리한다. 풍속을 높여서 체감온도를 낮추는 터널식 환기와 쿨링 패드, 살수장치(스프링클러), 그늘막

시설 등을 이용한다. 또, 육계는 역전점등[1], 냉각수 급여 등으로 열스트레스를 줄여준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박동구 과장은 “6월부터 9월까지 가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피해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의 사양 관리 요령 등 현장 기술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탑과채 딸기 생산 위한 육묘 기술 현장 상담

– 6개 지역 돌며 고온기 육묘 생육·병해충 관리 기술 지원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최고 품질 탑과채 딸기 육묘 기술 향상을 위한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

○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경남 하동, 전북 남원, 충남 당진, 전남 담양과 보성, 장흥의 6개 지역을 돌며 진행하고 있다.

○ 현장 상담은 전문가들이 단지별 딸기 육묘 현황을 살펴보고 육묘 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과 교육을 진행했다.

○ 육묘는 농사의 기본이 되는 작업으로, 특히 딸기 재배에서는 건전한 묘를 생산하는 것이 한 해 농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1℃ 이상 높고 건조한 상태가 지속돼 어린 모종의 생육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하우스 내 통풍과 환기를 철저히 하고 칼슘 부족에 유의해야 하며 흰가루병, 탄저병, 점박이응애, 작은뿌리파리의 예방과 방제도 선행돼야 한다.

1) 낮에는 (쉬게) 불을 꺼주고, 밤에 시원할 때 불을 켜 먹이를 먹도록 함.

○ 전문가들은 어린 모종 포트받기를 7월 상순까지 완료한 이후 60일이 지나면 모종을 아주심기하고, 모주(어미 모)와 첫 번째 받는 어린 모종의 잎을 적절히 없애 잎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병해충 예방과 양분 이동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고온과 일조 시간이 많을수록 어린 모종의 생육이 촉진돼 아주심기 전 노화가 우려되므로 어린 모종이 포트에 다 채워졌을 때 물을 대고 뿌리를 유도해 한꺼번에 아주심기 할 모종이 수확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현장 상담을 받은 농가들은 "직접 방문해 육묘의 생육 상태도 진단해주고 평소에 궁금했던 배양액과 환경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 올해 건전한 육묘 생산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오대민 기술지원과장은 "시범 단지 농업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현장 상담은 9월 말 장흥에서 수경재배 기술에 대해 2차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논 콩 파종 서두르세요!

– 파종시기가 콩 농사 성공 판가름 할 만큼 중요 –

○ 최근 건강식품으로 관심이 많아진 콩,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논 콩 재배농가도 늘고 있다. 콩은 특히 파종 시기에 따라 수량성과 품질의 차이가 큰 작물로 심는 시기 결정이 매우 중요한 작물이기도 하다.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은 남부지방 논 콩 파종에 알맞은 시기와 콩 종자소독 요령 등 논 콩 재배에 관한 기술 홍보와 현장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작물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논 콩 파종 시기에 따른 수량변화'를 시험한 결과, 6월 하순경에 최고 수량을 보였고, 그 이후로는 수량이 계속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했다.

○ 따라서 논 콩의 수량성을 높이면서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품종에 따른 파종적기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도농업기술원은 전했다. 혹시 기상 상황 등의 이유로 파종시기가 늦어지더라도 7월 상순 까지는 파종을 마쳐야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논 콩 파종 전에는 건전한 콩 종자를 준비해야 한다. 파종 전에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해줘야 각종 병해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종자 감염 병해는 콩 모자이크 바이러스병과 세균병인 불마름병, 들불병이 있고, 진균병해인 자주무늬병, 미이라병이 있다. 이들 병해는 콩 품질과 종자로 사용했을 때 발아율을 떨어뜨리고, 병이 다시 발생할 확률도 높다.

○ 종자 소독은 파종 전 종자에 베노람수화제나 지오람수화제 등의 살균제가 골고루 묻도록 가루묻힘(분의) 처리를 하도록 하며, 사용량은 적용 약제 권장량에 따라야 한다.

○ 파종 후 새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류기피제를 사용할 경우, 살균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코팅 처리해 파종하면 조류 피해와 종자 소독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 도농업기술원 이성태 연구사는 "논 콩 재배를 계획하는 농가에서는 안전 생산을 위해 파종 시기가 너무 늦지 않도록 하고, 늦어도 7월 상순까지는 마무리해야 다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고 당부했다.

* 출처 : 경남농업기술원

시설고추 석회결핍 차광 환기창으로 해결

– 도 농업기술원, 여름철 하우스 내부 온도관리 주의 당부 –

○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여름철 고온기 고추 시설재배 시 석회결핍과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하우스 환기와 차광막을 설치할 것을 도내 재배농가에 당부했다.

○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고추 시설재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우스내부의 높은 온도로 인한 석회결핍과로, 이 증상은 열매의 측면, 꼭지 부분 또는 끝부분에 약간 함몰된 갈색의 반점이 나타나게 된다.

○ 이 증상이 지속되면 부패한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과실을 쪼개보면 씨앗이 검게 변색되는데, 일단 석회결핍피해를 입은 과실은 그 증상이 아무리 가벼워도 상품성을 잃게 된다.

○ 이는 하우스 온도가 높아 양분간의 흡수 불균형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발생비율은 3.9%~32.5%로 품종 간 차이가 크다.

○ 석회결핍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산작용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과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차광막을 설치할 경우 7월 1일 이전에 설치하되 8월 15일 이후에는 차광막을 제거해줘야 한다.

○ 차광막 설치방법은 폭 1.2m, 3m 간격으로 설치하면 되며, 이 경우 최고온도를 평균 1도 낮춰줌으로써 석회결핍과 발생률을 4.3%로 줄일 수 있고 전체 수량이 9.4%정도 증가된다.

○ 또 여름철 시설내부 온도가 30이상 올라갈 경우에 대비해 하우스 천창에 환기창을 달아주는 것이 좋다.

○ 도 농업기술원 김지광 연구사는 “석회결핍은 노지에서는 거의 발생되지 않으나 시설재배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라며

"더위가 지속될 경우 차광망 설치와 함께 천창 환기창을 설치해 석회결핍과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 충남농업기술원

대추과원 복숭아심식나방 피해예방 나설 때

- 충북농업기술원, 발생 시기 도래에 따른 예찰 강화 유인트랩 설치 등 -

○ 충북농업기술원(원장 김태중)은 매년 대추재배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의 발생이 시작됨에 따라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복숭아심식나방은 유충(애벌레)으로 토양에서 월동한 후 번데기 과정을 거쳐 성충이 된다. 성충이 된 나방은 교미 후 산란을 하는데, 이때 산란한 알에서 부화 한 유충이 과실 안으로 파고 들어가 과육을 갈아먹어 피해를 주게 된다. 가해 된 대추 과실은 조기 착색이 되며, 피해가 진전됨에 따라 낙과하게 된다.

○ 도 농업기술원 대추연구소에 의하면 금년 복숭아심식나방 예찰트랩을 대추 주산지역 11개소에 설치하여 발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6월 중순에 첫 발생하였으며, 최대 발생 시기는 7월 상순에서 중순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 따라서 적기 방제를 위해 7월 상순부터 10일 간격으로 2~3회 적용 약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를 입은 과실은 즉시 따내어 물에 담가 유충을 제거해야 한다.

○ 충북농업기술원 대추연구소 이성균 연구사는 "매년 기후 변화와 과원의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발생 양상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피해가 있었던 농가는 예찰 트랩을 설치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밀도가 증가 할 경우 정확한 방제시기를 결정해야 효과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출처 : 충북농업기술원

8. 정책동향

◈ 구제역 평시 방역 전환 · AI 특별방역 지속

- 전남도, 100% 예방접종·소독 등 방역활동 철저 당부 -

○ 전라남도는 그동안 추진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6월 30일로 종료하고 1일부터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해 운영하고, 고병원성 AI는 완전 종식될 때까지 특별방역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 구제역은 지난 5월 22일자로 전국 발생 농장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으며, 5월까지였던 특별방역대책기간을 6월까지 연장해 방역을 강화했었다.

○ 하지만 최근에도 중국 등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농가에서 예방접종, 소독 및 차단방역을 소홀할 경우 재발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구제역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더라도 농가, 관계기관, 축산 관련단체에서는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

○ 이에 전라남도는 △구제역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혈청검사 강화 △도축장과 사료공장에 자체 소독전담관을 배치해 출입차량에 대해 소독필증 발급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등 차단방역 활동 강화 △매주 수요일 시군 및 축산위생사업소의 소독차량을 동원해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일제소독 실시 및 축산농가 자율 소독 강화 △가축질병 의심축 발견 시 가축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1588-9060, 1588-4060) 등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전남은 지금까지 구제역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예방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도내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에서는 가축 예방접종을 100% 실시하고, 소독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달라”며 “또한 고병원성 AI는 영암지역에서 지난 6월 10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3주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으니, 예찰·정밀검사·농가 자율 소독을 강화해 완전 종식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출처 : 전라남도

◈ 농관원, 품질인증 전통식품의 6차산업화 지원

-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에 브랜드 개발, 마케팅 비용 등 290백만 원 지원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전통식품의 6차산업화를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15년 전통식품 특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품질인증 전통식품** 제조현장을 주변 **관광요소와 연계**하여 소비자에게 체험 장소로 제공하고, 이들을 온-오프라인 소통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우량 고객화 함으로써 **전통식품 인증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통식품 품질인증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으로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 사업 추진방법은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 대상업체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업**으로 전통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명품화를 추진**하게 된다.

-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사업총괄, 예산지원

- (농관원) 지자체 추천업체 평가, 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 (지자체) 지역의 적정 업체 선정 및 추천, 대상업체 지원
- (유통공사) : 지원 대상업체 선정협조, 사업예산 집행
- (지원업체) : 사업추진 및 집행내역 정산 보고

❑ 정부에서 인증 받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관할 시·도에 신청**하면 되며, 소규모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 매출액(' 13~' 14년도 평균)이 **30억원 미만인 업체**로 신청요건을 정하였다.

○ 농관원은 지자체에서 추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의지, 경영자의 자질, 자체 품질관리 능력 등에 대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 선정된 업체는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업체 별 최대 30백만 원(전체 국고보조 290백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지원액의 30%는 자부담으로 추가하여 ' 15.8~11월(4개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지원업체 추천 및 선정**
- 지자체 신청(인증업체) → 농관원 추천(지자체, '15.7.17일까지)
→ 서류 및 현장심사(농관원) → 지원업체 선정(농관원)

◇ **지원 분야 :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 **사업 예산 : 377백만 원(국고보조 290, 자부담 87)**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업체별 30백만 원

◇ **선정업체 사업기간 : '15.8 ~ 11월(4개월)**

❑ 정부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도입('92년) 이후 전통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낮은 인지도,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인증업체가 판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농관원은 전통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14년부터 **전통식품 특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개 업체에 280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김대근 농관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지원업체가 전통식품 **명품 브랜드**와 **캐릭터 개발**, 그리고 **지역관광과 연계**한 체험행사 수행 등으로 우수고객 확보는 물론 판매증대로 이어져 **경영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 인증업체 및 소비자,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전통식품의 6차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등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업규모 축산농가 허가 기준 시설 조사 나선다

- 전남도, 8월 14일까지 2개월간…위반 시 행정처분·과태료·고발 등 조치 -

○ 전라남도는 전업규모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업 허가 기준 시설인 사육·방역·소독시설 설치 여부를 오는 8월 14일까지 2개월간 시군, 읍면동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 2013년 2월 가축 사육업 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기존 농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1년 이내에 시설·장비 등 허가 기준을 갖추도록 함에 따라 실제 축산 현장에서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 점검 시설은 소 600~1천 200㎡, 돼지 1천~2천㎡, 닭 1천 400~2천 500㎡, 오리 1천 300~2천 500㎡의 전업규모 농장으로 전남에 총 3천 456호가 대상이다.

○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지를 비롯해, 휴업·폐업·재개업 신고했는지, 가축 사육시설·소독시설·방역시설 등을 갖췄는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가축 재입식 시 시설·장비 등 허가기준을 이행했는지 등이다.

○ 점검 결과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기타 위반 사항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 정지 및 허가 취소, 시정명령 조치할 계획이다.

○ 특히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가축 재입식 시 법 제22조에 따른 축사시설, 소독장비 등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AI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그동안 전남에서는 올해 3월 기업농·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가축 거래 상인 3천 352농가 점검을 실시하고, 53농가에 시설개선 명령 등 시정 조치를 했다.

○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사육시설, 방역시설, 소독시설을 갖추고, 축산농가가 타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악성전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 미곡 혼합 유통·판매, 7월 7일부터 금지

- 농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 단속 강화 -

1 양곡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7월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도 해당된다.

* 예시 : 싸라기, 찹쌀, 유색미, 기능성 쌀 등도 포함

○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6일 공포되어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개정에 따라 금지 대상이 되는 미곡의 범위 등이 규정된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30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2 양곡관리법 개정의 의미

❑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는 수입쌀이 국산쌀과 혼합 유통되어 양곡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우려사항에 따라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동 개정안 시행 이전의 경우, 수입쌀은 밥맛 개선 등을 위해 국산쌀과 혼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금번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으로 국산쌀과 수입쌀이 구분되어 유통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 시행 이전에는 국산쌀과 수입쌀의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한다면 혼합 유통·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원산지 표시 적법여부와는 별개로 혼합 유통·판매 자체가 불법이 됨

3 향후 계획

❑ 정부는 양곡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간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7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7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양곡 판매업체 및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 농관원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중 쌀 등 양곡 유통에 관심이 많고 감시 경험이 풍부한 249명을 **'양곡표시 전담 명예 감시원'으로 활용**하여 민간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부정유통 감시 기능도 확충키로 하였다.

○ 또한 과거 부정유통 적발 실적 등 부정유통 개연성을 고려하여 양곡 취급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수입쌀의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을 위해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쌀 품종도 현행 520개에서 535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쌀 공매업체 및 물량 정보와 관세청의 수입통관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농관원·경찰청간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곡 혼합금지 시책을 조속히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과 부정유통업체 모니터링을 강화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양곡 가공·유통·판매업체는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여 조기에 양곡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9. 해외 농업정보

◈ 브라질, 타이트한 대출로 대두 파종면적 감소

브라질 민간분석기업 Agroconsult에 따르면, 브라질 농가들은 높은 이자율 및 보다 선별적인 대출시장으로 근 10년래 처음으로 대두 파종면적을 줄일 것이라고 한다.

Agroconsult의 수석분석가 Andre Pesso가 화요일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브라질의 주요 대두 재배지역인 중서부지역의 농가들은 2015/16년 기간동안 대두 오일시드 파종에 최대한의 면적을 할애할 것이나, 높은 자금비용으로 인해 유휴농지는 그대로 남겨둘 것이라고 한다.

한편, 농가들은 9월부터 대두파종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Pesso는 이어서 "높은 이자율은 대두파종 관련비용이 헥타르 당 100헤알(31달러) 상승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이며, 은행들이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높은 농가들에게는 많은 양의 대출을 지양하며 보다 선별적인 대출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번달 초, 브라질 정부는 2015/16년 농가예산을 발표하였는데 전체 대출액은 상승했으나 상승분의 대부분이 보조금 지원이 없는 대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Agroconsult의 시각은 다른 분석가들과는 상반된 시각이기도 했다. 다른 분석가들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대두 파종면적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7. 1.(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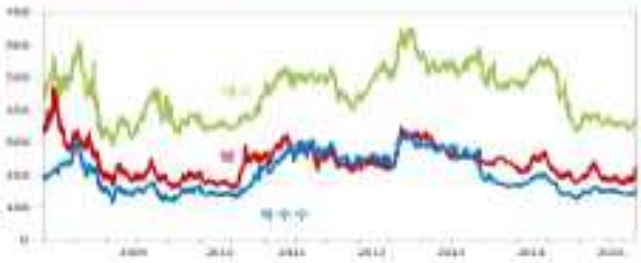
밀, 옥수수, 대두 가격 6개월래 최고치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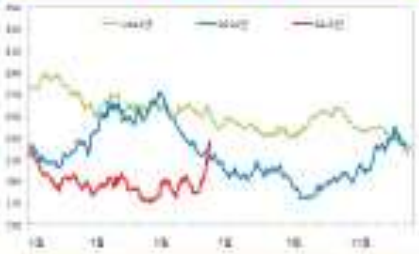
단위 : US$/ton

구분	기준일 ('15.6.30)	전일대비	전월평균 ('15.5)	2014 평균
밀	225.82	▲5.9%	180	216
옥수수	162.99	▲8.0%	141	164
대 두	388.06	▲5.4%	352	455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 7월물) 정산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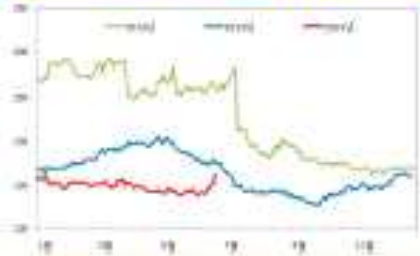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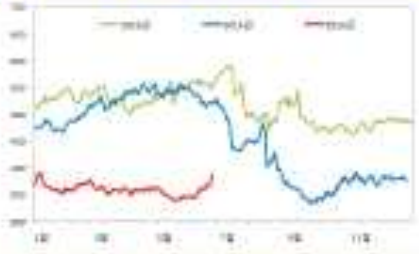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전일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감. 플리힌 날씨 전망과 미국농무부(USDA)의 재고량에 대한 차질로 인한 상승 예상에 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전망함. 현재 작석연질밀 작황은 약 36%가 완료되었으며, 5년 평균 46%에 못 미치는 실정임.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농부들의 공격적인 수확 전략와 몽부와 미주리 옥수수 주요 생산지역에 폭우와 이에 따른 품질 우려로 가격 반등. 중국은 2016년 옥수수 생산에 대한 지원을 끊고 다른작물로 전환 할 것으로 계획한다고 중국 농림부 장관은 밝힘.

대두 선물시장 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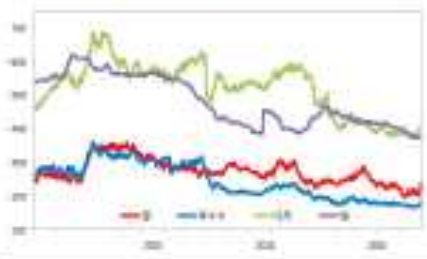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1월 중순이래 가장 높은 월리를 기록. 급등으로 마감함. 파종 지연으로 인해 6월 급격한 상승세. 1년 전보다 재고가 증가하였으나, 수요에 대한 공급 예측에 다소 확오가 있었다고 미국농무부(USDA)는 밝힘. 6월 6억2천만부셀의 재고가 있으며 이는 연초 4억부셀보다 많은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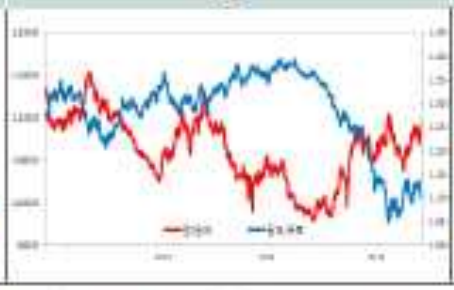
관련동향

- 폭우로 인한 작황 지연과 품질에 대한 우려로 밀 수출가격 상승.
- 국제유가는 이 원유 재고 감소 전망 및 미 증시 호조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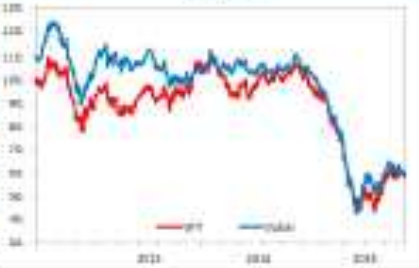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39	▲3.5%	환율	원/달러	1124.1	▲0.8%
	옥수수	181	▼0.5%		달러/유로	1.1131	▲1.2%
	대두	404	-	국제유가	WTI	59.47	▲2.0%
	쌀	378	-		Dubai	59.56	▲0.3%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ST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de B), WTI(0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6.29(수출가격), '15.6.30(환율), '15.6.30(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거래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출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고소득 농업사례

고성서 체리 노지 재배 성공 청년농업인 김동률 대표

- “처음엔 ‘이상한 사람’ 취급… 이젠 전국서 견학와요” -
- 4년 노력끝에 2012년 첫 결실 “재배 어렵다” 주변 선입견 깨 -
- 전국 돌며 신소득작물 수집도 -

○ “이제는 농업도 시대에 맞춰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하는 작물 재배로는 성공적인 농업의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 동해안 최북단 고성지역에서 벚나무 열매인 체리 노지 재배가 성공해 지역 농업발전에 또 다른 전기가 되고 있다.

○ 체리는 온대지역이나 시설에서 재배돼 춥고 바람이 강한 고성지역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었다.

○ 그러나 농업회사법인 ‘화정’의 김동률(32) 대표는 주위 사람들 대부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고성지역에서 처음으로 체리재배에 성공했다.

○ 고성 출신인 김 대표는 고성고를 졸업한 뒤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 그러나 농업도 노력에 따라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 3학년 때 강원대 농과대학으로 편입해 농업분야를 전공했다.

○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모님이 농산물 파동, 쌀 가격 폭락 등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 곁을 지키며 성공적인 농업을 해 보겠다는 의지도 작용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체리를 접하게

됐고, 평소 경쟁력 있는 고소득 작물을 찾던 김 대표는 2008년부터 전문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 우리나라에서 생산량이 미미하고 거의 수입에 의존, 희소성이 있는 체리 재배의 성공 가능성을 본 것. 주위에서는 이런 김 대표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지만 김 대표는 꿋꿋하게 매달렸다.

○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1만여㎡의 밭에 화분 실험 재배로 키운 묘목 700주를 옮겨 심은 김 대표는 4년여의 노력 끝에 지난 2012년 성공적인 첫 결실의 기쁨을 맛봤다.

○ "중간에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수확이 이뤄질 것입니다."

○ 올해도 5월말~6월초쯤에는 자줏빛 체리 열매를 만날 생각에 김 대표는 벌써부터 가슴이 뛴다.

○ 그러나 김 대표는 결코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다.

○ 농원에서 재배하는 체리 가운데 일부만 수확하고 나머지는 견학을 위해 농원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그대로 남겨둘 계획이다.

○ 김 대표의 체리 재배 성공 소식은 이미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며 농원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김 대표는 자신보다 뒤늦게 체리 재배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위해 묘목 보급은 물론 각 지역을 찾아다니며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관리도 빼놓지 않고 있다. 또 자신의 농원에서 묘목을 구입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묘목 대금의 일부를 농가발전 기금으로 기부할 계획을 갖고 있다.

○ 김 대표가 심혈을 기울이는 또 다른 부분은 새로운 작물사업을 위한 정보수집이다.

○ 전국 각지를 찾아다니며 신소득 작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매년 중국을 방문해 시장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 김 대표는 “체리사업에 대해 문의해 온다면 기꺼이 상담과 정보 공유를 통해 함께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고 싶다”고 청년 농업인의 패기를 보였다.

* 출처 : 강원도민일보

시설채소로 수억대 매출 올리는 권숙찬씨

– 과감한 작목전환…위기탈출 승부 –

○ 경기도에서 시설채소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권숙찬씨(67·경기 이천시 백사면)다. 그는 5만2800㎡(1만5972평)의 밭에서 한 해 수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성공한 농업인이자, 지금까지 재배한 채소의 종류가 48가지가 넘을 정도로 앞선 기술로 경기 시설채소를 이끌어온 선구자다.

○ 권씨가 농사일에 뛰어든 건 28년 전. 헐값에 얻은 용인 모현의 시멘트 땅을 맨손으로 고르며 시작한 농사일은 힘들었지만 그는 올곧게 상추농사에 매달렸다. 천성적인 부지런함에 노하우가 쌓이면서 농사는 대박이 났다.

○ 이에 자신감을 얻은 그는 곧 특수채소로 눈을 돌렸다. 웰빙바람이 불면서 특수채소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알아본 덕이다.

○ 그는 케일·겨자채·교나·썸머·비타민채까지 48가지가 넘는 채소를 기르며 한때는 한 해 9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용인의 웬만한 대형매장에 그의 상품이 안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였고, 직접 운영하는 매장만 한때 7군데였다.

○ 하지만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작목전환를 시도했다.

○ “어느 날 보니 특수채소가 전국에 다 퍼졌더라고요. 꼭지에 올라왔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과감하게 특수채소를 접었죠.”

○ 모현면이 개발되면서 농사지을 땅이 없어지자 그는 영농지를 이천으로 옮기면서 베이비채소로 눈을 돌렸다. 2007년의 일이다. 그의 선택은 주효했다. 베이비채소는 1㎏당 1만원을 호가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에게 또 한번 고비가 찾아온다. 지난 2014년 초부터 베이비채소 값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1㎏당 4000원까지 내려간 것. 그는 작년 9월, 청경채와 얼갈이·쑥갓으로 또 한번의 변신을 꾀한다. 이런 그의 두 번째 도전도 보기 좋게 성공해 전국 경매상들이 직접 찾아와 상품을 실어갈 정도다.

○ 이런 노력으로 그는 지금 하우스 60동에서 1년 내내 작물을 생산하며 5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다. 물론 어려움도 없지 않았다. 2013년 7월 폭우로 하우스, 농기구 등이 전부 떠내려가 3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지만, 그가 손에 쥔 보상금은 700만원이 고작이었다.

○ “처음으로 농사일에 회의가 일었지만 그동안 갈고닦은 기술이 아까워 땅을 떠날 수 없었죠. 시설채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 그는 다시 일어났다. 그의 농장에는 지금도 12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지만, 그는 밭 갈고 씨 뿌리는 일만큼은 남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 화학비료를 적게 써 연작피해를 줄이고, 지력을 높이기 위해 칡· 미역·산양삼 등을 넣어 자신만의 액비도 만든다.

○ “이젠 농업인도 작물만 잘 키우면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날씨부터 세상 돌아가는 일까지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야하죠. 농업인도 자기 농장에서 만큼은 최고 경영인이거든요.”

○ 칠순을 눈앞에 둔 나이에도 “도전이 무섭지 않다”는 권숙찬씨. 그는 누가 뭐래도 꿈꾸는 청년 농업인이다.

* 출처 : 농민신문

11.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15년 FTA 피해보전(피해보전직불금, 폐업)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6. 18. ~ 8. 28.

❍ 지원품목 : 닭고기(육계, 토종닭, 삼계)

❍ 지원대상 : 한미 FTA 협정발효일('12.3.15) 이전부터 닭고기를 생산한 자

- 피해보전직불금 : '14년에 닭고기를 생산하여 피해를 입은 자(계열화사업자 등)
- 폐업지원금 : 사육규모가 회당 1천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장 소유권자

❍ 지원단가(추정) : 직불금(19원/㎏), 폐업지원금(187원/마리)

◈ 전남-경북 농특산물 331장터 추진

❍ 행 사 명 : 전남-경북 농특산물 331장터

❍ 기　　간 : 2015. 10월 중순 ~ 11월 상순(기간중 3일간)

❍ 장　　소 : 서울광장(잠정)

❍ 규　　모 : 50여개 부스(도별 각 25개씩, 시군, 농협 등 단체)

❍ 행사내용 : 전남-경북 농수특산물 홍보 및 판촉, 영호남 화합행사

◈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수도권 공동마케팅 추진

❍ 기　　간 : 7. 2 ~ 7. 15(14일간)

❍ 장　　소 : 농협 고양하나로클럽(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최/주관 : 전라남도 / 농협 전남지역본부

❍ 참여업체 : 10개 농협('15. 전국 10대 고품질 브랜드 경영체)

❍ 주요내용 : 공동판매전, 홍보·시식행사, 구매 고객 사은품 증정 등

◈ 2015년 남도 우리 술 품평회 개최

- ❍ 일시/장소 : 7. 10.(금) 11:00 ~ 16:00 / 도청 수리채
- ❍ 주　　관 : (사)한국전통주진흥협회
- ❍ 참여기관 : 3개 시·도(전남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 ❍ 출품제품 : 25개 업체, 42개 제품(전남 33, 광주 1, 제주 8)

  ※ 생막걸리(14), 살균막걸리(2), 약주(10), 과실주(2), 일반증류주(6), 증류식소주(2), 리큐르(2), 기타(4)
- ❍ 선발계획 : 24개 제품(전남 18, 광주 1, 제주 5)
- ❍ 심사위원 : 7명(국내 주류전문가, 소믈리에 등으로 구성)
- ❍ 주요내용 : 심사위원 관능평가로 제품선정, 출품제품 컨설팅 등

주간
전남농업정보 41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3
Fax. 061-286-4782